

예산 최소화
효과 최대화

'나눔'의 행사로

조계종을 봉축행사 전망과 과제

핵심소재 '燈' 선정... 국민체험 유도 '희망심기' 작년비해 예산 27% 줄여 '고통 함께 나눈다'

'예산은 최소화, 효과는 최대화'에 올해 조계종 봉축행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제난의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누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는 축제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올 봉축위의 화두인 셈이다.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임주)는 21일 △희망의 등, 나눔의 등, 지혜의 등 밝히기 △진통종교축제로의 정착 △포교 조직강화 기여 △참가자 중심의 행사 등을 골자로 하는 봉축행사 기획 기조를 밝혔다. 조계종의 봉축기획 기조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맞는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최대한 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라는 표어를 확정한 봉축위는 등(燈)을 핵심 봉축소재로 선정하고 전국적인 등밝히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등 밝히기 운동은 부처님 오신날을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희망과 염원의 상징으로 등을 부각시켜 경제 위기 극복과 자비의 실천 의지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 봉축위의 의도다.

연등축제의 법요식, 전통복 복원, 디지털 개발을 통한 불교 이미지 홍보, 외국인 참여 확대, 봉축 노래개발 등이 올 봉축행사의 기본틀. 봉축위는 올 봉축행사 예산을 작년의 5억여원에 비해 27%정도 줄인 방침이다. 한해동안의 물가상승과 IMF체제 속에서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봉축위의 예산은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때문에 화려한 장엄을 통한 외적인 분위기 조성은 지양되고 행사규모를 축소해 참여효과를 극대화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봉축위는 불자와 일반 시민이 폭넓게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봉축행사를 '보는 행사'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행사'로 전환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작년까지 화려한 무대와 공연 위주로 기획했던 연등축제 회향식도 놀이마당 형식으로 무대를 최소화하고 불자와 시민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마당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봉축위는 몇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난으로 냉각된 사회 분위기를 녹여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다. 봉축행사의 국민축제화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불교의 사회적 기여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올 봉축행사는 불자위주의 행사보다는 비불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신선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져야 할 것이다.

또 올해가 종단이 선포한 '신도교육의 해'인 점을 감안 봉축 프로그램이 비불자들에게 불교를 이해하고 귀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도외시 되어온 강좌나 불교문화 체험이 가능한 당사,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복지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인문등 매체를 통한 봉축효과 극대화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로 꼽힌다. 신문 방송등 인문매체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로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봉축위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매체효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 각 지방간의 유기적인 행사교류 지원과 경비절감 논리에 부어 지나치게 초라해지는 행사가 없도록 살피는 일도 봉축위가 안은 중요한 과제다.

임연태 기자

승가교육체계 내실화 자신감 비쳐

조계종 교육원 올 사업계획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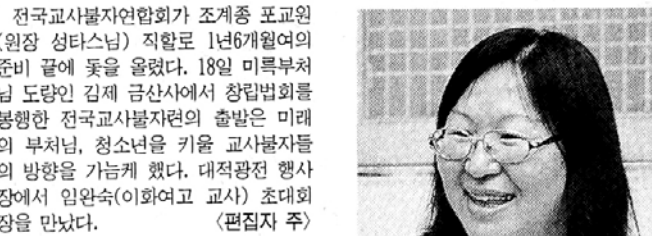
5개년 계획 수립 '선원 총람' 등 발간

조계종 교육원(위원장 임주)이 올해 사업방향으로 설정한 '승가교육의 내실화'는 출범이후 4년간 펼쳐왔던 각종 사업을 분개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와 함께 교육원의 입지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배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중단교육체계 및 승가위계 질서 확립과 기본교육기관 미이수자 대책 등 교육개혁의 총론을 마련했다면, 지금부터는 각론으로 과고등어가 세세한 것까지 완성도를 높여 명실상부한 중단교육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부분 교육원의 위상강화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자기초교육기간 3주에서 4주로 연장 △기초교육 개선안 마련 △분발사 주지 연수교육의 새 전형 창출 △스님

한명우 기자



전국교사불자련 임완숙 초대회장

수요 인터뷰

"안으론 수행 밖으론 청소년포교"

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서구사상의 무분별한 유입과 위정자들의 그릇된 종교관이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을 왜곡, 폄하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뿌리 없는 교육을 자행해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도덕불감증,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심, 심성의 황폐화 등이 지난 한 세기 교육정책의 과보예요. 이제 교사불자들이 나설 때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씨를 피우려는 일이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불자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창립을 전후해 회원이 5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홍보가 잘 된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학교별 분회, 시·군·구별 지회, 광역자치단체별 지부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 정기법회와 가족·아외법회 등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교양대학·초청법사

지역·학교별 조직 강화 파라미터와 긴밀 협조

를 활용, 교사님들의 불교공부와 수행정진을 도울 계획입니다.

-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전국교법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을 왜곡, 폄하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뿌리 없는 교육을 자행해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도덕불감증,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심, 심성의 황폐화 등이 지난 한 세기 교육정책의 과보예요. 이제 교사불자들이 나설 때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씨를 피우려는 일이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불자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창립을 전후해 회원이 5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홍보가 잘 된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학교별 분회, 시·군·구별 지회, 광역자치단체별 지부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 정기법회와 가족·아외법회 등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교양대학·초청법사

를 활용, 교사님들의 불교공부와 수행정진을 도울 계획입니다.

-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전국교법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을 왜곡, 폄하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뿌리 없는 교육을 자행해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도덕불감증,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심, 심성의 황폐화 등이 지난 한 세기 교육정책의 과보예요. 이제 교사불자들이 나설 때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씨를 피우려는 일이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불자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창립을 전후해 회원이 5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홍보가 잘 된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학교별 분회, 시·군·구별 지회, 광역자치단체별 지부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 정기법회와 가족·아외법회 등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교양대학·초청법사

를 활용, 교사님들의 불교공부와 수행정진을 도울 계획입니다.

-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전국교법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을 왜곡, 폄하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뿌리 없는 교육을 자행해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도덕불감증,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심, 심성의 황폐화 등이 지난 한 세기 교육정책의 과보예요. 이제 교사불자들이 나설 때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씨를 피우려는 일이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불자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창립을 전후해 회원이 5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홍보가 잘 된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학교별 분회, 시·군·구별 지회, 광역자치단체별 지부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 정기법회와 가족·아외법회 등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교양대학·초청법사

를 활용, 교사님들의 불교공부와 수행정진을 도울 계획입니다.

-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전국교법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을 왜곡, 폄하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뿌리 없는 교육을 자행해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도덕불감증,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심, 심성의 황폐화 등이 지난 한 세기 교육정책의 과보예요. 이제 교사불자들이 나설 때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씨를 피우려는 일이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불자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창립을 전후해 회원이 5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홍보가 잘 된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학교별 분회, 시·군·구별 지회, 광역자치단체별 지부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 정기법회와 가족·아외법회 등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교양대학·초청법사

를 활용, 교사님들의 불교공부와 수행정진을 도울 계획입니다.

-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전국교법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을 왜곡, 폄하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뿌리 없는 교육을 자행해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도덕불감증,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심, 심성의 황폐화 등이 지난 한 세기 교육정책의 과보예요. 이제 교사불자들이 나설 때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씨를 피우려는 일이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불자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창립을 전후해 회원이 5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홍보가 잘 된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학교별 분회, 시·군·구별 지회, 광역자치단체별 지부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 정기법회와 가족·아외법회 등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교양대학·초청법사

를 활용, 교사님들의 불교공부와 수행정진을 도울 계획입니다.

-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전국교법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을 왜곡, 폄하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뿌리 없는 교육을 자행해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도덕불감증,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심, 심성의 황폐화 등이 지난 한 세기 교육정책의 과보예요. 이제 교사불자들이 나설 때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씨를 피우려는 일이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불자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창립을 전후해 회원이 5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홍보가 잘 된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학교별 분회, 시·군·구별 지회, 광역자치단체별 지부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 정기법회와 가족·아외법회 등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교양대학·초청법사

를 활용, 교사님들의 불교공부와 수행정진을 도울 계획입니다.

-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전국교법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을 왜곡, 폄하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뿌리 없는 교육을 자행해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도덕불감증,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심, 심성의 황폐화 등이 지난 한 세기 교육정책의 과보예요. 이제 교사불자들이 나설 때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씨를 피우려는 일이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불자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창립을 전후해 회원이 5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홍보가 잘 된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학교별 분회, 시·군·구별 지회, 광역자치단체별 지부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 정기법회와 가족·아외법회 등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교양대학·초청법사

설날은 우리민족에게 어떤 날인가. 단순히 음력으로 한해를 시작하는 첫날만은 아니다. 우리는 설날에 차례를 모시며 조상님네와 만난다.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가족·친척들이 모여 화목을 다진다. 아이들은 설빔을 입고 윷놀이·제기차기·널뛰기를 하며 설날 노래를 한다.

"까지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설날새벽에 까치소리를 먼저 들으면 그해에 운수대통한다는 속설도 있다.

이처럼 설날에는 꿈과 희망 그리고 효(孝)와 화합이 깃들여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공휴일 축소를 거론하면서 유력설대신 양력설 쇠는 방안을 제기하자 국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은 알고있다. 이중과세가 큰 낭비라는 것을. 그리고 연간 69일이 나뉘는 공휴일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고 공휴일을 줄이자는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연말 12월31일에 쉬면서 차분히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여 1월1일에 시무식을 하자. 신정연휴를

없애고 설연휴를 3일에서 2일로 줄이자."

"국경일을 쉬지 않더라도 '설날'은 살려야 한다."

우리는 양력설을 쇠라는 일제의 강압에도 고유의 명절 설을 지켜왔다. 정부수립후 양력설 연휴를 지내면서 이중과세는 없어지지 않았다. 결국 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정했다. 89년 '설날'로 연휴화 하여 1일 휴일을 3일로 늘렸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다고 설날을 없애고 양력설을 쇠는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를 이어온 설날은 우리 민족의 혼과

전통문화속이 살아 숨쉬는 명절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는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53)교수는 말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문화입니다. 문화 이미지는 역사의 산물에서 구축됩니다. 한국인은 다양한 문화적·종교적 영향속에서 잠재적 창의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내가 정책결정자라면 문화의 힘을 외면 않겠습니다."

설날은 세계화 시대에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이며 자신이 아닐까.



목어

설날

설날은 우리 민족의 혼과 전통문화속이 살아 숨쉬는 명절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는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53)교수는 말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문화입니다. 문화 이미지는 역사의 산물에서 구축됩니다. 한국인은 다양한 문화적·종교적 영향속에서 잠재적 창의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내가 정책결정자라면 문화의 힘을 외면 않겠습니다." 설날은 세계화 시대에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이며 자신이 아닐까.

◇신도교육 과정(안)

단계	입 문	종 급
명칭	입문강좌	불교학교
교재	<불교입문>	<신도교리서>
조건	의무	의무
목표	기본예절습득, 불교신행에 동참토록 교육	신행원리 및 믿음의 공덕 이해
시간	주1회 20회(6개월)	주 1회 20회(6개월)
교육 내용	사찰안내 및 예법, 기초교리, 신도의 권리와 의무, 신행의 의미와 방법, 사찰의 구조와 의미	종교일반의 이해, 불교의 근본교리, 중국과 한국의 불교, 불교의 실천원리
수료후	오계수지, 신도등록	보살계 수지

*이 안은 지난해 12월 중앙종회 포교분과위가 제시한 교육과정(안)과 포교원의 방침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조계종 신도교육 어떻게 하나

교리·예절 등 입문교육 6개월과정 마쳐야 수계·신도등록 '가능'

앞으로 조계종의 모든 사찰은 신도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 조계종은 올해를 '신도교육의 해'로 정하고 각 사찰마다 입문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포교원은 입문 및 이후의 중급과정을 각 6개월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입문과정은 96년 출간된 <불교입문>을 교재로 매주 1회 교육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는 불교의 기본예절과 기초교리, 부처님의 생애 등을 배운다. 입문자는 최소한 6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 불자가 되는 수계를 받을 수 있다. 입문과정 이후의 중급과정은 2월 출간되는 <신도교리서>를 교재로 6개월 과정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

이다. <포 교원> 이와 함께 포교원은 신도교육을 담당할 지도자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신도교육 지침서>를 토대로 분발사 주지연수와 초임주지 연수 등에서 신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시행시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포교원은 모든 조계종 사찰에서 일시에 신도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교재에 따른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각 사찰에서 융통성있게 활용하도록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포교부장 원혜섭님은 "확실적으로는 안된다. 종령도 당장 제정하지는 않는다. 차질 일선 사찰의 사정을 무시한 행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신도교육은 신도교육 과정을 개설하기 힘들다. 고정 신도가 적은 뿐만 아니라 사찰의 유지·관리 인원 외에 신도교육을 담당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지역연합 또는 교구본사 차원에서 불교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남원의 경우 지역연합이 공동으로 남원불교대학을 설립, 신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불교세가 미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방도량을 지정, 중단차원에서 교육기관 개설을 지원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中央僧伽大學校 '98 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본교는 '79년 2월에 개교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증단에서 운영하는 '승려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개교 이래 70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91년 3월 각종 학교로 4년제 대학학력을 인정 받았고, '96년 12월 안암교정에서 정규대학으로 개편인가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로서, '97년 2개 학과 증설, 군법사 지원대학 인가 등 제반구비 및 학풍이 정착되어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정립을 위한 김포교정 신축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승가교육의 중심도량(道場)'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	신 입 학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불 교	0명	00명	00명
역 경	00명		
포 교사 회	00명		
사 회 복 지		0명	0명

* 제2차모집 할 수 있으며, 출신교과와 본교 지원학과 간의 동일계(비동일계)에 대한 가(감)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특차모집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신입학 시험
 - 지원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고교 중요과목 성적 40%와 교리 및 상식고사 성적 40%, 면접고사 성적 20%로 선발 함.

■ 편입학 시험

- < 2학년 >
 - 지원자격: '98.3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남 2년이상 승려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각종학교 포함) 및 1년 이상 수료자나 (35학점 이상 취득)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 가능)
 - (전문대는 졸업자, 방송대, 산업대(개방대)는 2학년(80학점) 이상 수료자)
 - * 단 전적학교에서 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자격이 없음.
 - * '98.2학년 편입생은 정규대학생으로 졸업시 학사학위 수여함.
- < 3학년 >
 - 지원자격: '98.3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남 3년이상 승려로서 4년제 대학 졸업·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70학점 이상 취득)(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 가능)
 - * 단 전적학교에서 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자격이 없음.
 - * '98.3학년 편입생은 졸업시 대학 졸업학력 인정함.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전적대학 성적 40%와 교리 및 상식고사 성적 40%, 면접고사 성적 20%로 선발 함.

추가모집 일정

- 원서교부: '98.1.23.(금)~2.6.(금) 17:00 교학처 (포·일·공휴일은 수위실에서 교부함)
- 원서접수: '98.2.4.(수)~2.6.(금) 17:00 교학처
 - * 전화 교부신청, 우편 교부·접수(마감시한 이전 도착·동기우송) 가능함.
- 예비소집: '98.2.9.(월) 13:00 (음. 1.13.)
 - * 원서 교부종 및 승려증(신분증) 필참
- 교리 및 상식고사: '98.2.9.(월) 13:30~14:30
- 면접 및 인성검사: '98.2.9.(월) 15:00~17:00
- 합격자 발표: '98.2.13.(금) 15:00 본교 게시판 및 전화안내
- 등록기간: '98.2.18.(수)~2.20.(금) 16:30 (음.1.22.~1.2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출신교 직인 등 날인
 - * 출석 및 중요과목성적 기록과 작성 교직원 서명, 날인 후 테이프 부착
 - * 고교졸업(예정)증명서 기록 날인 (입학원서 뒷면)
 -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원본 및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시·도 교육청 발급)(원본은 대조 확인후 반환)
 - 나.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98년 졸업(예정)자 외
 - 다. 승적증명서 1부: (총무원 발급 - 최초 수계일 기록)
 - 라. 최종 수계증(또는 계첩) 사본 1부
 - 마. 건강진단서 1부: (대학입시 또는 입사용 - 보건소, 병의원 발급)
 - 바. 은사 추천서 1부: (은사, 사숙 등)
 - 사. 초적 등본 1부
 - 아. 주민등록 등본 1부
 - 자. 칼라사진(오조가사 수한 반영함판 3x4cm) 4매 제출, 3매 원서부착
- 차.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3,000원
(2) 전 형 료: 55,000원

* 이 추가모집 공고의 사항은 기 배포된 정시모집 요강에서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학처로 문의바람.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135-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교학처 ☎ (02)925-5507~9,926-4377(내선 202~5) FAX (02)928-4302